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요인

이 경 식*

1. 머리말
2.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3. 이순신의 초기전투 승리요인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임진왜란 시 이순신이 첫 해전부터 마지막 해전까지 단 한 번의 패전 없이 승리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그 해답은 초기해전의 승리요인부터 찾아가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임진왜란 발발 전 이순신의 전쟁준비부터 연구하게 되었다.

* 육군리더십센터 단장

E-mail: kslee4001@hanmail.net

이순신의 승리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많다. 나종우는 이순신의 뛰어난 지휘통솔력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승리요인으로 들었는데, 그가 제시한 전략전술은 계비책(戒備策), 정신전력의 강화, 치밀한 정보활동, 전투환경의 적절한 이용, 위계책(爲計策), 선제공격과 방화전법, 거북선의 충파전법, 진법 등 다양하다.¹⁾

김태준은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활용, 전력의 집중을 통한 상대적 우세 달성,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습공격, 다양한 전술구사 등을 승리요인으로 도출했다.²⁾

김강녕은 전선과 무기체계의 우수성, 이순신의 적절한 전략전술구사, 전황에 부합한 리더십의 발휘를 승리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³⁾

이민웅은 승리요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쟁준비 활동으로 병력 충원, 전선 건조와 거북선의 창제, 총통류 등 무기체계의 준비, 철저한 군사훈련⁴⁾, 해전 시 이순신의 ‘결전전략(決戰戰略)’과 ‘당파전술(撞破戰術)’을 승리요인으로 들고 있다.⁵⁾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해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승리요인을 도출하고 있고, 거의 모든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수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각종 무기체계(판옥선·거북선, 총통)의 성능⁶⁾,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전술과 리더십

1) 나종우,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전북사학』 제5집, 1981, 79~97쪽.

2) 김태준, 「이순신 장군의 해전승리 요인 분석」, 『교수논총』 제44집, 2007, 83~95쪽.

3) 김강녕, 「이순신의 해전: 주요 승전사례와 전쟁사적 의의」, 『군사논단』 제69호, 2012, 170쪽.

4)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72쪽.

5) 결전전략은 일본함대를 발견하는 즉시 함대 결전을 벌여 격파하는 전략이며, 당파전술은 화포를 이용하여 적선을 파괴하고 불화살로 적선을 태우는 전술이다. 이민웅, 「임진왜란 시기 호남 수군의 활약과 전략전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4, 61쪽.

6) 당시 조선 수군이 운용하던 거북선과 판옥선에는 고려 말부터 개량해 온 천자·지자·현자·황자·별황자 총통 등의 대형화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화포 성능의 우수성은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술적인 우위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수군은 중·소형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동의하지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 부임하여 일본수군과 전라좌수군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였고 실질적으로 전쟁준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화포를 탑재한 거북선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사실을 인지한 임진년(1592) 4월 15일 이후 5월 4일 경상도 앞바다로 출동할 때까지 과정과 그 때에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수군보다 우월한 무기체계가 승리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순신이 염두에 둔 기동조건이나 거북선과 판옥선을 통합한 화력 집중 방법을 포함하여 승리를 결정짓는 이순신만의 구체적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일본수군은 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함선을 운용하였으며 조총을 주무기로 하여 배의 현을 붙이고 백병전을 위주로 전술을 펼치던 반면, 조선 수군은 대형 선박의 전후좌우에 장착된 각종 대형 화포를 바탕으로 함포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조선군이 사용한 화포는 일본군의 조총에 비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었으므로 육전과는 다르게 조선 수군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권13, 육군군사연구소, 2012, 421~422쪽.

일본수군의 전선에 비해 판옥선의 우월성은, ① 전투원과 비전투원인 노군의 공간이 분리되어 노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② 판옥선이 일본수군의 전선보다 높아 일본수군이 판옥선에 뛰어들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③ 판옥선에 총통을 탑재하였다는 것이다.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37쪽.

거북선의 용머리는 덮개위치보다 높지는 않았다. 용머리에서 현자총통을 쏘았으며, 돌출된 도깨비머리로 적선과 충돌할 때 사용하였고, 노는 거북선을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쪽에 7개씩 14개를 사용하였다. 포는 최소 8문 이상 최대 24문, 승조원 수는 125~130명, 속도는 최소 3노트에서 최대 8노트로 추정한다. 덮개에 갈송곳을 꽂았다. 최두환, 「임란시의 원형 거북선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2집, 1999, 147~148쪽.

천자총통은 대장군전(900보)과 조란환 400발, 지자총통은 장군전(800보)과 조란환 200발, 현자총통은 차대전(800~1,500보)과 조란환 100발, 황자총통은 피령차중전(1,100보)과 조란환 40발, 별황자총통은 피령목전(1,100보)과 조란환 40발을 사격할 수 있었는데, 각 총통의 조란환은 사거리가 10여리까지 도달하였다. 『화포식언해』 천자총통조, 지자총통조, 현자총통조, 황자총통조, 별황자총통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이순신의 초기해전을 분석한 것도 전투상황을 재구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세부분석이 필요하며, 1차 출전과 비교하여 2차 출전에서의 발전적인 차이점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적으로 좀 더 깊숙하게 접근하여 이순신의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이 초기 해전에서 어떻게 전투력으로 발휘되었는지 심층 깊게 분석하여 승리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투력 요소’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임진왜란 발발 전 이순신의 전쟁준비 활동과 이순신이 1·2차 출전하여 수행한 초기해전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순신의 초기해전 승리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누락요소 없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순신의 전쟁준비와 수행한 전투에 대하여 전투력 요소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이므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순신 전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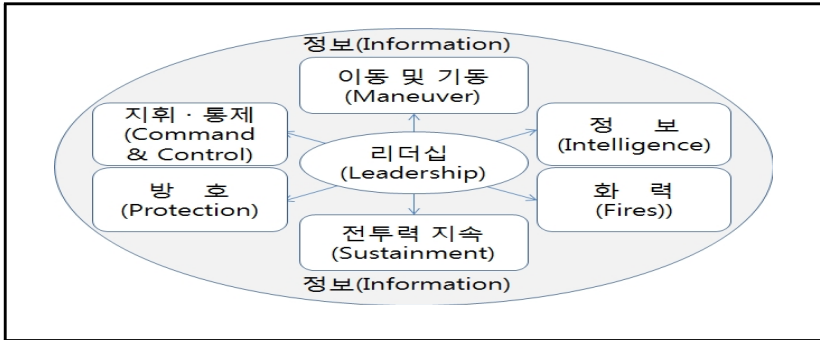
2.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가. 전투력 요소

전투력은 군부대 및 조직(Military Unit and formation)이 주어진 시간에 운용할 수 있는 파괴적·건설적 능력, 그리고 정보(Information)능력의 총체적 수단을 말한다. 전투력 요소에는 <표 1>과 같이 정보(intelligence), 지휘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이동 및 기동(maneuver), 화력(fires), 방호(protection),

전투력 지속(sustainment), 정보(information), 리더십(leadership) 이 있다.⁷⁾

〈표 1〉 전투력 요소



출처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perations』 FM 3-0, U.S.Army, 2008, p.4-1.

전투력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⁸⁾

- 정보(Intelligence)는 작전환경·적·지형·민간 고려요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연관된 과업과 체계이다. 여기에는 정보, 감시, 정찰작전과 연관된 과업을 포함하고 지휘관에 의해서 이끌어 진다.
- 정보(Information)는 작전환경에 있어 강력한 수단이다. 다른 전투력 요소들을 이해하고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고 지시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 전투원들은 지속적으로 작전대상을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한다.⁹⁾

7)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perations』 FM 3-0, U.S. Army, 2008, p.4-1.

8) 위의 책, pp.4-2~4-6.

9) ‘Intelligence’와 ‘Information’은 동일한 한글단어인 ‘정보’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Intelligence는 정보 수집과 획득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nformation은 수집·분석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telligence와 Information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지휘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는 지휘권과 지시를 행사함에 있어서 지휘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지휘 및 통제를 통해서 임무달성을 위해 모든 전투력 요소를 통합한다.
- 기동(Maneuver)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적에 비해 지리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전적 지역에서 실시하는 부대의 투입이다.
- 화력(Fires)은 적에 대한 타격체계로써 통상적으로 기동에 대해 전반적인 효과로 기여한다.
- 방호(Protection)는 지휘관이 최대한의 전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부대를 보존하는데 관련된 과업과 체계이다.
- 전투력 지속(Sustainment)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작전적 범위를 확장하며 지구력을 연장하는 지원체계로써, 군수의 공급, 인사근무, 의무근무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리더십(Leadership)은 다른 전투력 요소들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통합한다. 확신에 차고 유능하며 지식이 충분한 리더의 리더십은 건전한 작전적 사고를 구체화하고 부대의 군기와 동기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투력의 다른 요소들의 효과성을 증대한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전투력의 가장 역동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투수행상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반면에 부실한 리더십은 전투능력에 있어서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다.

위의 전투력 요소들은 통합되어 발휘될 때 승수효과를 나타낸다. 전투력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전투 이전에 전투력은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능력이다. 리더십을 통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은 행동으로 전환된다. 행동을 통합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Information)’ 한다. 정보는 다른 전투력의 요소들을 통해서 적용된다. 전투력은 숙련된 지휘관이 잘 훈련된 병력과 부대들을 이끌 때 결정적이다. 궁극적으로 지휘관은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우세한 전투력으로 승리를 달성한다.¹⁰⁾

위와 같은 전투력 요소가 이순신의 초기전투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이순신의 전쟁준비 활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0) 앞의 책, p.4-2.

나. 전투력 요소에 의한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 분석

1) 임진왜란 발발 전(前) 이순신의 전쟁준비

이순신이 철저하게 전쟁준비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기 4년 전인 1587년에 왜적이 전라좌수군 지역인 흥양(고흥)에 침입하여 조선수군이 대패한 사건이 있었다. 선조 20년(1587) 2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왜선이 흥양에 침구하였는데, 녹도 권관 이대원이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¹¹⁾고 하였다. 그해 『선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년(1587) 2월 왜적선 18척이 흥양 손죽도에 침범하자 전라좌수사 심암은 녹도권관 이대원을 척후로 삼아 왜구와 싸우게 했는데, 왜구가 많고 조선수군은 적어서 대적하지 못하고 패전하였다. 이 때 조선수군은 장사(將士) 천여 명을 잃었다. 조정에서는 패전한 이유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별했다. 전라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을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참수되었다. 순천부사 변기는 처음부터 힘써 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망갔고, 신영은 유독 병선이 몹시 느리다고 핑계대며 즉시 나가서 싸우지 않고 바깥 바다에서 관망하다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가벼렸으며, 성천지 · 박인봉 · 이흥명도 힘껏 싸우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문책되었다. 또한 전라감사 한준도 이대원이 패하여 죽었을 당시 순천에 도착하여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내지로 급히 돌아갔는데, 그때 노약자들이 길을 막고 붙들면서 호소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별별 떨며 물러갔으므로 파직되었다.¹²⁾

선조가 그해 3월 7일에 지시하기를, 2월에 발생한 흥양 왜구 침입사건에 대해 ‘그 전투에서 패한 원인과 살해되고 약탈당한 인원 수, 적의 군사 형편과 장수 및 군사들의 용감하고 비겁한 정도에

11) 『선조수정실록』 21권, 20년 2월 1일 경신.

12) 『선조수정실록』 21권, 20년 2월 1일 경신; 『선조실록』 21권, 20년 2월 26일 을유; 3월 3일 임진; 3월 10일 기해; 3월 28일 정사; 4월 4일 계해; 6월 4일 임술; 8월 9일 병인 기록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대하여 자세히 알아서 날날이 보고하라.’¹³⁾고 하였다. 이에 비변사에서 전라좌수사 심암의 국문을 청했고,¹⁴⁾ 선조가 전투에 패한 심암을 군문에서 참수할 것을 논의하라고 지시¹⁵⁾한 후, 4월 4일에 참수형을 집행하였다.¹⁶⁾ 이렇듯 신속하게 엄벌을 시행함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잡고자 하였다.

그해 8월에는 선유어사로 오랫동안 호남에 머물다가 돌아온 조인후가 상세한 패전 이유를 보고¹⁷⁾하였는데, 관련 장수들이 전투를 회피하여 패전하게 되었으므로 모두에게 군기 문란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였다.

위의 사건은 당시 조선 군대의 기율 문란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써, 4년 뒤인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기율을 엄하게 하면서 전투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사건 후에 선조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선조 20년(1587) 『선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월 2일, 적과 맞서 응변할 적에는 마땅히 적의 용병하는 형세를 잘 알아 대응해야 된다. [……] 바깥 바다에 계속 체류하고 여러 섬에 나누어 정박하면서 오래도록 쳐들어오지 않아 그 실정을 측량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참작하여 아킬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 적을 방어할 모든 기구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병조에 이르라.¹⁸⁾
- 3월 3일, 무릇 적병의 많고 적은 것은 따질 것이 없다. 오직 용병의 기율과 기예 및 용맹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좌수사 심암은 이미 적과 전투를 벌였는데도 적이 용병하는 형편과 깃발·금고(金鼓: 징과 북) 등의 일을

13)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7일 병신.

14)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10일 기해.

15)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28일 정사.

16) 『선조실록』 21권, 20년 4월 4일 계해.

17) 『선조실록』 21권, 20년 8월 9일 병인.

18) 『선조실록』 21권, 20년 3월 2일 신묘.

모두 갖춰 진술하지 않았으니, 그 미욕함을 알겠다. [……] 적이 비록 잠시 물러났으나 이는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다. 절대 마음을 태만히 하지 말고 더욱 전구(戰具)를 닦고 창을 베고 자면서 대비하라. 그리고 봉수(烽燧)나 요망(瞭望) 등의 일을 날로 새롭게 조사하고 단속하라.¹⁹⁾

위의 인용과 같이 선조의 지시내용에 기초하여 당시의 관심사항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선조가 지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선 조정에서 파악한 패전의 원인은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모든 조선수군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이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했을 것이며, 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왜구함선의 대규모 침입에 대응하는 전라좌수군과 전라도 군대의 기울이 문란하여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기강과 기울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전투에 참가한 전라좌수군을 포함한 많은 부대들이 그렇지 못했고, 왜구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전투 전에 도망가거나 전투를 회피하는 장졸 때문에 크게 패했다.

둘째, 왜구의 지휘체계나 함선, 무기, 전술, 군기와 용맹성, 전투능력, 신호 및 명령체계(깃발과 金鼓)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왜구가 상당한 규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바깥 바다에서 체류한다거나 여러 섬에 나누어 대기한다는 것은 지휘체계와 전투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했다.

셋째, 왜구가 언제 침략할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상시 전투준비를 갖춰야 했다. 특히 즉각 전투에 돌입하겠다는 정신자세로 모든 전투도구를 준비하고, 적에 대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진-포구 간의 신호 및 연락체계와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넷째,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는 왜구함선이 상륙하기 전에

19) 『선조실록』 권21, 20년 3월 3일 임진.

바다에서 격멸해야 했다.

위의 교훈은 이순신이 4년 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전쟁준비를 할 때 중요하게 참고했을 것이다.

선조 24년(1591)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징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조정에서는 왜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2월 12일에는 선조가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순신을 포함하여 이억기, 이천, 양응지 등을 남쪽 지방의 요해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²⁰⁾ 장수들을 새로 임명한 조치를 보더라도 전란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해 3월 통신사들이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황윤길 이 부산에 도착하여 일본의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전란이 터질 것이라고 급보²¹⁾하였으며, 윤 3월에는 일본의 사신 현소가 김성일에게 “명나라가 일본과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조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이것을 분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싸움을 일으키려고 한다.”²²⁾고 하였다.

이순신은 위와 같은 왜란 발발 정보(Intelligence & Information)에 기초하여 전쟁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 『선묘중흥지』에 ‘벌써 왜국과의 관계가 멀어졌건만 조정과 민간은 무사태평으로 지내고 이순신만이 홀로 걱정하여 크게 전함을 보수하고 군사들을 다스리는 데에도 법도가 있었다.’²³⁾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순신만이 전쟁준비를 매우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조정에서도 왜란 발발에 대비하여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선조 24년(1591) 7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서

20) 『선조실록』 권25, 24년 2월 12일 기묘.

21) 김성일은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 3월 3일 갑자.

22)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윤 3월 1일 병인.

23) 『선묘중흥지』 권1, 선조 24년 7월 十三쪽.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 비변사에서 “왜구가 바다에서는 잘 싸우지만 육지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므로 육지에서 방어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건의하여, 호남과 영남에서 큰 고을의 성들을 덧쌓고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평지에 다 쌓았고 높이도 두세 길은 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적을 막아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²⁴⁾

선조 25년(1592) 초, 조선 조정은 전국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장 신립과 이일에게 여러 도의 전쟁준비 상황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일은 호서와 호남에, 신립은 경기와 해서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점검한 것은 활과 화살, 창과 칼뿐이었고, 고을들에서는 빈 문서들만 갖추어 놓고 법을 모면하였다²⁵⁾고 『선조수정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즉, 위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조선은 왜란 발발 정보에 기초하여 조정의 통제 하에 전국적으로 왜란에 대비하였으나, 이순신만이 내실 있게 준비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은 무엇인가? 이순신은 정해년(1587) 흥양 왜구 침입 사건에서 도출한 교훈과 일본수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전쟁준비를 했을 것이며, 전쟁준비 중점은 전라좌수군의 취약점을 우선 보강하고 일본수군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었을 것이다.

이순신의 전쟁준비 중점을 역으로 조명해보면 일본수군의 강약을 추정할 수 있다. 이순신이 판단한 일본수군의 강점은 ‘등선하여 육박전을 잘 한다’는 것이고, 약점은 ‘일본수군의 함선에 원거리리를

24) 이때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의 좌우병영에 성을 덧쌓고 참호도 설치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7월 1일 갑자.

25)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2월 1일 임진.

사격할 수 있는 화포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대비책은 조선 조정의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²⁶⁾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일본수군의 함선을 원거리에서 총통사격²⁷⁾으로 당파하여 상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²⁸⁾이었고, 일본군이 상륙하였을 때는 각 관·포에서 수성(守城)전투²⁹⁾로 일본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순신이 판단한 전라좌수군의 취약점은 16세기 조선 군대 전반에 퍼져있는 군역의 문란³⁰⁾이나, 정해년(1587) 홍양 왜구

26) 일본군의 침입에 대하여 해상에서 해전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일본군이 상륙하기를 기다려 육지에서 제압한다는 지상전 위주의 수세 전략이었다.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제7권, 육군군사연구소, 2012, 31쪽.

27) 이순신의 1차 출전 승첩장계 「玉浦破倭兵狀」을 보면, 옥포해전에서는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면서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적진포해전에서는 ‘총과 대포를 쏘아 맞추어 깨뜨려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순신이 총통을 이용한 원거리 사격으로 일본함선을 격파하는 전술개념으로 싸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28) 일본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생각은 확고하였다. 이순신의 경상도 출전 보고 장계에 보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군의 세력이 왕성해진 것은 모두 적들과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적들이 밋대로 물으로 올라가게 내버려 둔 때문입니다. [……] 지난날 부산·동래 연해안 여러 장수들이 만약 배와 노를 잘 정비하여 바다 가득히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수군의 배들을 들이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와 힘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적절히 병법대로 나아가고 물러남으로써 적들을 물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욱되게 하는 우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29) 임진왜란 전 수군의 방왜체제(防倭體制)는 제승방략으로 수사에게 진·포를 소속시켜 일본군 침입 시 수사가 관·포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전투하는 개념이었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51쪽.

따라서 일본군이 상륙했을 경우에는 수사의 책임 하에 수성전투로 격멸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수성전투에 대하여 이순신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의 바닷가 여러 고을들은 깊은 해자와 높은 성루로 튼튼한 곳이 많았는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사들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간담이 떨려 모조리 도망칠 생각만 품었으므로, 적이 에워싸기만 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30) 16세기 말에는 군역의 회피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즉 군적에는 일정한 수효가 올라 있으나 실제 군역을 지는 병력은 거의 없었다. 이민웅, 앞의 책, 75쪽.

침입사건 때 나타난 것처럼 기율을 엄하게 세워야 하는 상태³¹⁾, 왜란이 곧 발발할 것이라는 여론에도 형식적인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나마 각종 총통을 탑재한 판옥선은 조선수군의 강점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염두에 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쟁준비는 전라좌수군의 지휘통제체계(Command and Control)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먼저, 엄격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한 이순신의 조치를 임진년(1592) 『난중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에도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한 활동이 있는 것은 군역문란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현감이 수색 검토(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 『난중일기』 임진년 4월 9일.

- 31) 정해년(1587) 홍양 왜구 침입사건 후 관련 책임자들 모두를 엄벌하여 기율을 확립시킨 조정의 조치가 있었는데, 심압 다음으로 전라좌수사가 된 이천 재임 시에도 전라좌수군의 분란은 계속되었다. 이천이 수토(搜討)할 일로 전라좌수군 예하장수들을 집합시켰는데, 늦게 도착한 순천부사·보성·낙안·홍양·광양 수령들을 장형으로 벌하였다. 이 때 장형을 맞은 보성군수 이흠이 즉사하였다. 이 사건 후 이천이 인심을 잃었다고 전라감사 윤두수가 보고하였고, 비변사가 이천의 체차(교체)를 청한 다음, 선조가 체차를 승인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전라감사 윤두수를 능멸한 전 수사 이천의 파직과 우후를 무단 벌한 감사 윤두수의 추고를 청하였으며, 윤두수가 이천의 장계에서 자신을 지척하였다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선조가 방어사 신립에게 이천이 이흠을 형장한 일에 대해 지휘계통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천은 방어사 신립이 작성한 이흠의 지체사유 문건을 묵살함으로써 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죄로 장 80대를 맞고 직첩 3등을 빼앗겼다. 『선조실록』 21권, 20년 6월 1일 기미, 7월 21일 무신, 7월 23일 경술, 7월 24일 신해, 7월 30일 정사, 8월 1일 무오, 8월 26일 계미에 실린 관련내용을 종합하였다.

이민웅은 이 사건에 대해 신임 수사가 전라좌도 수군의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이민웅. 앞의 책, 71쪽.

〈표 2〉 이순신의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1592년)

일자	잘못한 인원	죄 목	처 별
1. 16.	방답 군관과 색리	병선 수리하지 않음.	곤장
	토병 박몽세	이웃집 개에게 피해	곤장 80대
2. 15.	석공들	해자 구덩이 많이 무너짐.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함.
2. 25.	사도 군관과 색리/ 첨사/교수	전쟁준비에 결함 많음.	죄를 처결/ 잡아 들임/파직
3. 4.	우두머리 승려	승군들 돌 줍는 일 불성실	곤장
3. 5.	색리, 궁장, 감고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	논죄
3. 20.	순천부사 대장(代將) 색리, 도훈도	순천부사가 탐색할 일을 기한에 마치지 못함.	추궁하여 따짐.
	사도첨사, 홍양현감	탐색한 일 조사 목적	공문 보냄
3. 23.	사환 소국진	널빤지가 제때에 오지 않음.	곤장 80대
4. 18.	병방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음.	잡아 가둠.
5. 3.	여도수군 황옥천	왜적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도망	목을 베어 군중 앞에 호시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16일, 2월 15일, 2월 25일, 3월 4일, 3월 5일,
3월 20일, 3월 23일, 4월 18일, 5월 3일에서 발췌.

이순신은 위의 〈표 2〉와 같이 전쟁준비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잘못하고 기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였다.

또한, 편성된 부대에 대해 주기적으로 병력을 점검하여 지휘체계를 확인하였다. 임진년(1592) 1월 3일에는 별방군, 1월 19일에는 각 부대, 2월 16일에는 친구변 군사들, 3월 1일에는 별방군과 정규 군병과 하변군, 4월 1일에는 별조방을 점검했다.³²⁾

이순신의 현장 지휘통제의 백미는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이

32) 『난중일기』 임진년 1월 3일, 1월 19일, 2월 16일, 3월 1일, 4월 1일.

지나면서 <표 3>과 같이 예하 5관 5포³³⁾를 8박 9일 동안 현장에서 전비태세를 검열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검열하는 가장 큰 장점은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열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시행함으로써 가장 즉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 전투준비태세 현장 검열(1592년)

일 자	검열 지역
2. 19.	여도 검열
2. 20.	늦게 홍양 도착
2. 21.	홍양 검열
2. 22.	녹도 검열
2. 23.	발포 검열
2. 24.	사도 검열
2. 25.	사도 군관/색리/첨사/교수 처벌
2. 26.	방답 검열
2. 27.	방답 검열 후 전라좌수영 복귀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2월 19일~27일.

일본수군에 비해 조선수군의 가장 큰 강점은 함선에 화포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일본수군의 함선을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 이순신은 판옥선의 각종 대포(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 등)의 사격과 거북선의 대포 시험 사격을 확인하였으며, 거북선에 직접 탑승하여 대포 사격을 확인하는 등 함선의 화력(Fires)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상당한 관심을 두었다.

2월 22일, 그 길로 녹도로 가서 [……] 대포 쏘는 것도 보느라 촛불을 한참동안 밝히고서야 자리를 파했다.

3월 27일,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

4월 12일,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현자·지자 대포를 쏘아 보았다.³⁴⁾

그러나 판옥선에 탑재하여 원거리를 사격할 수 있는 총통과 같은 강력한 화력이 있었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함선에서의 사격은 명중

33) 5관은 순천, 낙안, 보성, 광양, 홍양(고흥)이고, 5포는 방답(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사도(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녹도(고흥군 도양읍 녹동), 발포(고흥군 도화면), 여도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이다.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一)」

34) 『난중일기』 임진년 2월 22일, 3월 27일, 4월 12일.

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순신의 고민이 여기에서 깊어졌을 것이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함선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해야 하는데, 일본수군의 강점인 등선을 거부하면서 일본수군 함선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사격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거북선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³⁵⁾ 거북선은 일본수군의 등선육박전술(登船肉撲戰術)³⁶⁾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거북선 등판에 칼송곳을 꽂았는데,³⁷⁾ 이는 일본수군의 강점을 회피하고 조선수군의 강점인 화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이순신의 대비책은 먼저 일본수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바다에서 일본 함선을 격침하는 것이며, 상륙했을 때에는 수성전투로 격멸하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상륙에도 대비하여 방호(Protection)태세를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를 보면 전라좌수군 진(陣)의 방호태세를 점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월 4일, 해자 구덩이를 돌아보았다.

3월 25일, 새로 쌓은 성을 돌아보니 남쪽이 아홉 발 썸이나 허물어짐.

3월 27일, 배를 타고 소포(여수 동쪽 포구)로 가서 쇠사슬을 가로 걸어 매는 일을 감독하고 하루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³⁸⁾

35) 제장명도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군이 포구 깊숙이 주둔하고 있을 때 원거리에서 발포할 경우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접하여 포를 발사해야 한다. 이 경우 판옥선은 일본군들이 포구 입구의 언덕에서 쏘는 화포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적의 화포 공격에도 인명 피해 없이 적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판자로 등 부분을 장갑한 구조의 전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37쪽.

36) 일본식 표현은 ‘키리토리(切り取り)’라고 하며, ‘(배에 올라타서) 사람을 처죽이고 물품을 빼앗다.’라는 의미이다. 이민웅, 앞의 책, 104쪽.

37)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경신.

38) 『난중일기』 임진년 2월 4일, 3월 25일, 3월 27일.

일본군의 상륙공격에 대비하여 성곽과 주변 해자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활동을 직접 감독하였으며, 전라좌수영 포구를 통한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모든 방비를 싸우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대비하였다.

또한, 전투력 지속(Sustainment) 지원태세 유지를 위한 이순신의 노력을 임진년(1592) 『난중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임진년(1592) 1~4월 『난중일기』에 기록된 전투력 지속 활동

1월	3월
1일 : 장전, 편전 받음. 3일 : 별방군 점검 16일 : 병선 수리 19일 : 각 군대 점검	1일 : 별방군, 정규병, 하번군 점검 2일 : 승군 돌 주웠음. 6일 : 군기(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 점검 12일 : 경강선 점검 20일 : 탐색한 일 검토 24일 : 탐색 복귀 27일 : 거북선, 대포 시험
2월	4월
8일 : 거북선에 쓸 돛배 받음. 11일 : 새로 뽑은 군사 점고 13일 : 큰화살대, 중간화살대, 쇠 보냄. 16일 : 신병과 임무를 마친 군사들 검열 20일 : 전선, 무기점검 22일 : 배, 대포 점검 24일 : 전선 점검 25일 : 전쟁 준비 26일 : 무기, 장전, 편전, 전투선 점검	1일 : 별조방 점검 9일 : 수색 검토 11일 : 배뚫 만듦. 12일 : 거북선, 지자·현자포 사격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2월, 3월, 4월14일까지 내용에서 발췌.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이순신은 전투력 지속 지원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관심은 병력, 전선, 거북선, 총통, 활과 화살, 창, 칼 등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순신은 병력 확보를 위해서 정규군에 해당하는 상·하번 정병 외에도 별방군·별조방군 등 다양한 형태의 병력을 징발해 전쟁에 대비했다. 16세기 말에는 군적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복무하지 않는 군역의 회피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순신은 본영과

휘하의 5관 5포의 병력 유지를 규정대로 철저히 감독했던 것이다. 39)

또한 함선의 기능유지 여부와 전투에 긴요한 각종 무기를 점검한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 기록내용이다.

- 1월 16일, 방답의 병선 담당 군관과 아전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아 곤장 때림.
- 3월 6일, 무기를 검열해 보니 칼,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서 아전과 궁장(활 만드는 기술자), 감고(검열관)들을 벌줌.
- 3월 12일, 경강의 배를 점검하고⁴⁰⁾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순신은 전함과 각종 무기류의 보수와 기능 발휘 등을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효과적인 리더십(Leadership)은 다른 전투력 요소들을 통합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승수효과로 나타난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모든 전쟁준비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군이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수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하는 임무에 초점을 맞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임진년(1592) 『난중일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5〉 임진년(1592) 1~3월 『난중일기』에 기록된 리더십 관련 활동

구 분	세 부 내 용
전쟁준비에 집중한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방군 점검(1.3), 각 부대 점고(1.19), 봉화대·해자 점검(2.4), 신병 점고(2.11), 별방군과 정구군 점고/하번군 점고(3.1), 해자·성벽 점검(3.4), 무기 검열(3.6), 배 점검(3.12), 순천 관내 수색검토 하는 일 점검(3.20), • 2.19~27(8박 9일간)까지 5관 5포 현장 순시 전비태세 검열
원칙적인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답 병선 담당 군관과 아전 곤장(1.16), 석수 박몽세 곤장 80대(1.16), 석수 벌줌(2.15), 승군 우두머리 매를 때림(3.4), 순천 대장·아전·도훈도 문책(3.20)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1월, 2월, 3월 내용에서 발췌.

39) 이민웅, 앞의 책, 75쪽.

40) 『임진일기』, 1592년 1월 16일, 3월 6일, 3월 12일.

위의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임진왜란 발발 전의 이순신은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 임무에 지향한 현장 중심의 원칙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2)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상황판단과 조치

전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어떠한 상황판단과 조치를 하였는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장계」를 종합하여 왜란 발발 시부터 1차 출전까지 이순신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인지 후 1차 출전까지 주요활동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우수사(원균), 경상좌수사(박홍), 경상관찰사(김수)로부터 왜란이 발발했다는 공문 접수 인왜경대변장(1)[因倭警待變狀(一)] 보고, 순찰사(이광)와 병마사(최원)에게 보고,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전파, 군사와 전선 정비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우수사 공문 접수, 因倭警待變狀(二)·(三) 보고, 경상-전라 총청도에 공문 발송 모든 전투장비 갖추도록 지시, 병사 보충 등 모든 것을 사변 대비 체제로 전환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 우병마사(김성일)의 공문 접수, 전·후번 수군을 방비처로 오도록 함.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우수사의 공문 접수,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兵房)이 군사를 인도하지 않아 잡아가둠.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방(品防)⁴¹⁾에 해자를 파는 일 독려, 상경대 순시, 신병 700명 접고 및 사역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 관찰사(김수) 공문 접수(전황 및 구원해 오도록 장계로 청했다고 알림.)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두군(城頭軍)(성 위의 궁수들)을 벌려 세울 일로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 내림.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망하고 부정한 일을 적발하기 위해 군관들을 예하부대로 보냄, 품방 사역시킴.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길을 따라 적선을 습격하라고 명령하는 유서(命 從水路 激襲敵船 諭書) 접수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균과 합세하여 적을 치라고 명령하는 유서(命 與元均合勢攻賊 諭書) 접수 부원경상도장(1)[赴援慶尙道狀(一)] 보고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균의 회답공문 접수(전라좌도 전선으로 당포 앞바다로 구원요청)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赴援慶尙道狀(二) 보고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좌수영 예하 함선이 모두 전라좌수영 앞바다에 모임.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에서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의논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4일 새벽에 출전할 것을 약속, 출동 장계 작성, 탈영한 수군 황옥천을 호수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赴援慶尙道狀(三) 보고, 새벽에 출동(1차 출전), 미조항 앞바다에서 다시 한 번 약속

출처: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5일~5월 4일;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 (二), (三)」; 「赴援慶尙道狀(一), (二), (三)」

41) ‘품(品)’자 모양으로 구덩이를 파서 적의 침입을 막도록 만든 곳이다. 노승석, 『증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4, 76쪽에서 재인용.

이순신은 임진년(1592) 4월 15일 전란이 발발했다는 공문을 경상우수사, 경상좌수사, 경상관찰사로부터 접수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전란상황의 전파와 일본군에 대한 정보(Intelligence) 수집 활동이었다.

이순신은 전란상황을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전파하였고, 전라도 겸관찰사(이광), 전라도 병마절도사(최원)에게 보고하였으며,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아울러 전라 좌수영 예하 각 고을과 포구에도 동시에 공문을 돌려 전황을 알려주고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와 전선들을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대비⁴²⁾하도록 하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다.

전란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전라좌수영을 전란대비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군이 전라좌도로 쳐들어올 수 있으므로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면서, 탐방 활동을 활발히 하고 모든 전투장비를 준비하였다.⁴³⁾ 특히 병력 보충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동원된 군사들을 수성 군사와 수전 군사에 우선 보충시켜 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수군을 보충시켰다.⁴⁴⁾

여기에서 4월 20일에 경상관찰사 김수로부터 전라좌수군으로 원군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했다는 공문을 받은 이순신의 판단과 조치가 어떠한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우수사 원군도 경상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동시에 받았을 것이므로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통하여 이순신의 판단과 조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순신은 제승방략(制勝方略)⁴⁵⁾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라

42) 『이충무공 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

43)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二)」

44)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5) 임진왜란 발발 시기의 수군방어체제는 제승방략이었다. 을묘왜변 이전에 수군 방어체제는 세조 3년(1458)에 재편한 진관체제(鎭管體制)였다. 이는 도 단위로 수사가 임명되어 지휘관으로서 부여된 책임지역의 해안을 방어하였다. 진관체

좌수군의 책임지역을 지키기 위해 대비조치를 하고 있었다. 일본수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함선들을 예하 관·포 어귀에 대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병력 보충 및 충원,⁴⁶⁾ 일본수군의 상륙에도 대비하여 4월 21일에는 ‘성위에 군사를 줄지어 세우는 일로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⁴⁷⁾고 했고, 4월 22일에는 ‘품방에서 일을 시켰다.’⁴⁸⁾고 하였다. 위의 기록으로 추정해 볼 때 일본군과의 해전과 육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상도 지역 바다로 출전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승방략에 의하여 일본군의 침입규모에 따라 군사를 집결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타도(他道)로 출동할 수 있었다. 경상관찰사 김수가 공문을 보내 전라좌수군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책임지역 밖으로 부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의 출동명령이 있어야 하므로,⁴⁹⁾ 이순신은

제에서의 해양방위의 특징은 수사가 관할하여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지휘권과 작전권이 독립된 지역방위체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관체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략(制勝方略)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는 수사에 게 해상방어 요새지의 진관을 소속시켜 평시에는 제진(諸鎭)을 방어하다가 적의 침략이 예상되면 군사요새지에 군사를 집결토록 하여 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수군방어체제였다. 나중우,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조선관계사연구』 10호, 1998, 86~89쪽에서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 46) 전라좌수영의 병력 보충 및 충원활동의 기록은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의 전·후번 수군을 방비처로 오도록 한 것, 4월 18일의 순천 군사를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인도하게 되어있는 것, 4월 19일의 신병 700명 집고 등의 활동이다. 『난중일기』 임진년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이순신의 2차 출전 후 승전장계에 등장하는 전·사상자를 기초로 분석해 보았을 때, 조선수군은 정규 수군에 추가하여 다양한 신분의 군사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병(正兵: 육군), 보인(保人: 당번 수군이 유고 시에 보인이 근무), 토병(土兵: 비정규군, 그 고장에서 출생·성장하여 지리에 밝은 자), 포작(鮑作: 평소 해산물 채취하는 사람), 노비(奴婢) 등이며, 가용한 모든 인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 논문, 24~32쪽.

- 47) 『난중일기』 임진년 4월 21일.

- 48) 『난중일기』 임진년 4월 22일.

- 49) 당시에 부대를 출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밀병부를 침부한 명령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다음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불의에 불러

조정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의 임진년(1592) 4월 27일 장계[赴援慶尙道狀(一)]를 보면 경상관찰사(김수)가 구원을 요청한 공문(4월 20일 도착)의 내용과 4월 26일 애매한 조정의 지시(命 從水路 激襲敵船 論書)를 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은 “나아가 같이 싸우라는 조정의 명령을 엿드려 기다리면서, 소속 수군과 각 고을 및 포구에는 전선을 정비하여 주장(主將)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급보를 띄웠으며, 본도의 감사 및 병마사와도 의논을 하였다.”⁵⁰⁾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균의 구원요청을 이순신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면 원균은 4월 29일이 되어서야 구원요청을 하였다.⁵¹⁾ 이순신은 전황을 접수하면 공문에 그대로 명시하여 전파하거나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순신의 장계

들일 때 뜻밖의 변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비밀 병부(兵符) 세 짝을 새로 만들어 한 짝은 대신에게 주고 두 짝은 대궐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불의에 불리 들었을 때 병부를 맞추어 대조해 보게 하였다. 병조판서와 8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도 주었다. 『선조실록』 권24, 23년 2월 11일 갑신.

50)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

51) 1592년 4월 29일 이전에 원균의 구원요청을 기록한 임진왜란 당시의 문서는 없다. 다만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기록된 문서는 있다. ①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은 이순신의 「장계」내용과 일치한다고 평가된다. 『선조수정실록』에 의하면, 원균이 그 계책을 따라 울포만호 이영남을 보내어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 [……] 이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지키기에도 힘겨운데 어느 거를에 다른 도에 가겠는가.”라고 하였으나, 오직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만은 의분심에 넘쳐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에게 일본수군을 치러 나가자고 권하면서 [……], 이순신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경신.

② 그러나 『정비록』의 기록은 이순신의 기록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비록』에 의하면, 원균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이영남으로 하여금 이순신에게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이에 대하여, “각각 분담한 경계가 있으니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어찌 함부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하며 거절하였다. 원균은 이영남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청하도록 하여 대여섯 차례나 계속 왔다 돌아가곤 했는데, 늘 이영남이 돌아갈 때마다 원균은 뱃머리에 앉아서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유성룡, 『징비록』 권1.

기록에 의하면 4월 29일 이전에 원군으로부터 전황에 관련하여 3회의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순신이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기 위해 전라좌수군의 모든 함선을 4월 29일까지 전라좌수영 앞바다로 집결시켜 4월 30일에 출발하려고 한 당초 계획은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의 구원요청과 4월 27일 조정의 승인에 의한 것이지 원군의 뒤늦은 구원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⁵²⁾

그러나 이순신의 출전 시기는 전라좌수군의 집결일자가 늦어져 이들이 지연되었고, 전라 겸관찰사 이광의 지시에 따라 전라우수군의 합류를 기다리느라 3일을 더 소비하다가 ‘육지의 왜군이 서울로 접근하려 하므로,⁵³⁾ [……] 칼날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본군들을 맞아, 그 돌아갈 길을 끊어놓고 그 배들을 쳐부순다면, 일본군들은 뒤가 염려되어 곧바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기에, 5월 4일 새벽에 전라좌수군 단독으로 출동⁵⁴⁾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일본수군을 격멸함으로써 조정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라우수군은 뒤따라오도록 하고 출전을 서둘렀던 것이다.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전라좌수군이 경상도 앞바다로 출전할 때 이순신의 의도적인 지연출동은 없었다. 그러나 훗날 선조 29년 병신년(1596) 『선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인용과 같이 원군의 구원요청에 이순신이 신속하게 출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중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해들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52)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53) 실제로 일본군은 임진년(1592) 5월 2일 서울에 입성하였다. 『선조실록』 25년 5월 3일자를 보면, “선조: 적이 이미 강(한강)을 건넜는가? 신잡·이상홍: 어제 저녁에 이미 입성했다고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3일 임술.

54)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三)」

6월 26일, 김응남이 말하기를 “원균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 이순신을 불러도 이순신이 오지 않으므로 원균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원균이 이순신에게 군사를 요청했는데 성공은 도리어 이순신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로 두 장수 사이가 서로 막혀졌다고 합니다.”⁵⁵⁾
 11월 7일, 이덕열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원균이) 열댓 번 부른 후에야 비로소 나가 적선 60척을 깨뜨리고 먼저 자기 공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⁵⁶⁾

당시 원균을 요청할 때는 조정에 건의해야 하고, 조정의 출동명령이 있어야 했다. 임진년(1592)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가 전라좌수군의 원균을 요청할 때도 조정에 건의하는 절차를 따랐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에서 언급한 원균의 직접적인 원균요청은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어전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다른 저의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전하기 전에 조정에 보고한 장계[赴援慶尙道狀(一), (二), (三)]는 조선 조정의 피난으로 선조에게 보고되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있다.

셋째, 이순신은 경상도 바다로 출동(Maneuver)을 준비하고 있었다. 위 이순신의 장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동준비 사항은, ① 전라좌수영 본영과 예하 5관 5포는 모든 전선을 정비하고 제반 전투기구를 잘 손질해 놓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며, ② 경상도로 구원 나가기 위해 4월 29일까지 모든 전함들은 출동준비를 갖춰 전라좌수영 앞바다로 집합하도록 했다. 또한, ③ 경상도 순변사(이일) · 관찰사(김수) · (경상)우도수군절도사(원균)에게 경상도의 물길 사정, 두 도의 수군이 모일 장소, 적선의 수 및 그들이 현재 정박해 있는 곳과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한 일들을 전부 급히 회답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경상도로 구원 나갈 계획을 통보

55) 『선조실록』 권76, 29년 6월 26일 임술.

56)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7일 기해.

하였다.⁵⁷⁾

넷째, 이순신은 경상도 바다로 출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순신은 자기 관할지역이 아닌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임진년(1592) 4월 30일 장계[赴援慶尙道狀(二)]로 보고하였다.

경상우수사(원균)로부터 일본함대의 상황, 경상우수영의 아군 상황, 당포 앞바다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4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출동부대와 잔류부대를 편성하였고, 출동예정 시간은 4월 30일 새벽 4시경이며, 인접한 경상도 수군을 첩입군(疊入軍)⁵⁸⁾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입군으로 운용할 미조항, 상주포, 곡포, 평산포 등 네 진 모두 왜적선이 오기도 전에 달아나버려 경상도의 물길에 험한지 평탄한지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해 줄 배도 없으며, 작전에 호응해줄 장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라좌도수군 함선규모가 총 30척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라 겸관찰사(이광)도 전라우수사(이억기)에게 이순신과 힘을 합쳐 구원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전라우수영 함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경상도로 나갈 계획입니다.⁵⁹⁾

위의 장계를 보면, 전라좌수군 함대가 첫 출전하는데 이순신이 고려하는 기동조건을 알 수 있다. ① 적에 관한 상세한 정보(규모, 위치, 활동 실태, 사기, 군량 등)가 파악되어야 하고, ② 전투할 지역의 아군 상황도 면밀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물길 안내 배와 호응하는 아군부대도 있어야 한다. ③ 전투할 작전지역 환경인 뱃길의 특징과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④ 전투를 해야 할 일본군 함대규모가 경상도 지역에 500여 척 이라고 하니 가용한 배를 모두 합쳐서 함대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57) 『이충무공전서』 권2, 「因倭警待變狀(一)」에서 발췌.

58) 첩입군: 공동관할지역의 군대. 공동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전라수군 쪽에서도 군사적 요구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 제1권, 비봉출판사, 2006, 161쪽.

59)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에서 발췌 요약.

것 등을 기동조건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출전하기 전에 위의 기동조건은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되지 못했다. 위의 조건 ①, ②, ③은 출동 후에 원군의 경상우수군과 협조하고 탐망활동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조건 ④는 출동 전에 반드시 갖추고 싶었던 이순신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라우수군을 기다려서 합류한 후 출동하고자 했다.

다섯째, 일본수군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순신의 장계에서 그의 구상을 알 수 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군의 세력이 왕성해진 것은 모두 적들과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적들이 물으로 올라가게 내버려 둔 때문입니다. [……] 만약 배와 노를 잘 정비하여 바다 가득히 진을 치고 있다가 왜적의 배들을 들이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와 힘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적절히 병법대로 나아가고 물러남으로써 적들이 물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욱되게 하는 우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⁶⁰⁾

위의 장계와 같이, 이순신의 전투 목표는 배에 타고 있는 일본수군을 바다에서 격멸하여 물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순신이 구상한 세부적인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적극적인 탐망활동으로 일본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강·약점을 파악한다. ② 공격진형을 유지하여 함대의 위용을 일본수군에게 보여준다. ③ 아군 및 적군의 현재 상태, 작전지역의 지형과 기상, 바다 물길 등을 활용하고 병법대로 진퇴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다에서 일본수군을 격멸함으로써 육지의 일본군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도였다.

60)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二)」

3. 이순신의 초기전투 승리요인

가. 이순신의 1차 출전 전투 분석

이순신이 1·2차 출전하여 수행한 전투에 대해 전투력 요소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이순신의 해전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전투력으로 발휘되어 승리하였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순신의 전라좌도수군

함대는 임진년(1592) 5월 4일 새벽 2시경(丑時)에 경상도 앞바다로 1차 출전을 하였다. 출동규모는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⁶¹⁾으로 편성하였다. 5월 4일 전라좌수영(여수)을 출발하여 소비포에서 밤을 지내고, 5일에는 당포, 6일에는 송미포를 거쳐, 7일에는 옥포해전과 함포해전, 8일에는 적진포해전을 하고, 9일에 전라좌수영으로 복귀하였다.⁶²⁾

옥포해전은 임진년(1592) 5월 7일에 있었다. 옥포 선창에 정박해 있으면서 분탕질하고 있는 왜선 30여 척에 대하여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포와 화살을 쏘아 26척을 분멸하였다.

이순신의 장계에 기록된 전투행동을 전투력 요소별로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요도 1> 이순신 1차 출전 상황도



출처: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34쪽.

61) ‘포작선’은 고기잡이배로써, 전력이 약해 보일 것을 우려해 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웅, 앞의 책, 124쪽.

62)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표 7〉 옥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군에게 적선의 수/정박해 있는 곳/접전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 • 척후 운용, 옥포 선창에 왜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함.
지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작선 46척을 편성, 두 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약속을 분명히 함. • 척후장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 번고를 알림.
이동/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구 앞바다로 줄지어 나란히 들어감,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었음.
화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함. • 왜적의 배 26척을 총통으로 쏘아 맞아 깨뜨리고 불태웠음.
방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도 이미 저물어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와 머물러 함.(계획)
전투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들을 시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여 밤을 지내려고 하였음.(계획)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이순신의 승전장계에 나타난 전투행동을 기초로 옥포해전을 분석해 보면, 이순신은 일본수군과의 첫 전투에 임하면서 매우 신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함대에 포작선을 46척이나 편성한 것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지휘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함대의 규모를 크게 보이려고 한 조치로 추정된다. 또한 원군으로부터 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활동이나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등의 활동은 이를 반증한다.

일본함대를 찾기 위해 원군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척후를 운용하여 일본함대를 먼저 발견하였다.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처음으로 연합함대를 구성하므로 두 도의 장수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약속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작전계획, 싸우는 방법, 신호체계 등에 대해 토의하고 명령을 하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기전 신호, 나란히 줄지어 이동하는 대형 유지, 일본함선을 에워싸고 공격한 행동은 사전에 충분히 약속되지 않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일본함선들이 선창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을

표적으로 삼아 양쪽으로 포위하여 총통과 화살공격을 퍼부은 것은 포위의 기동으로 일본함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전투 후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 머물려고 하거나 군사들을 시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여 밤을 지내려고 한 계획은 전투력 지속을 염두에 둔 이순신의 계획이었다.

특히, 리더십 측면에서 각 전투력 요소에 부합되는 전투행동들을 세심하고 신중하게 통합 운용함으로써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투 후 거제도도 도망가는 일본함선을 추격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지만, 작전지역·적 상황·기상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조선 함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옥포해전 후 오후 4시경 일본함선 5척이 멀지 않은 바다에서 지나간다는 보고를 받고 추격하였는데, 일본수군은 합포(마산)에 함선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합포해전에서 일본수군 대선 4척, 소선 1척을 분멸했다. 합포해전에서 전투력발휘는 <표 8>과 같다.

<표 8> 합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오후 4시경(申時)에 왜적의 큰 배 5척이 지나가고 있다는 척후장의 보고
이동/기동	•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웅천 땅 합포(마산) 앞바다에 이르니, 왜적들은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갔음.
지휘통제	• 전투 중에도 척후를 운용
화 력	• 왜적의 배를 활을 쏘아 [……] 모조리 깨뜨려 불태움.
방호/전투력 지속	• 노를 재촉하여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보냄.
리더십	• 옥포해전후 영등포에서 밤을 지내려고 했으나, 왜적선 발견 보고를 받고 즉시 추격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합포해전은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지휘통제와 리더십이 돋보인다. 옥포해전 전투 중에도 척후를 운용하여 이동하는 일본함선을 발견한 것이라든지, 발견 즉시 추격하여 격멸하는 것은 이순신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진포해전은 임진년(1592) 5월 8일에 있었다. <표 9>의 전투력 발휘활동과 같이 진해 고리랑에 일본수군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출발하여, 고성 적진포에서 일본함선 13척을 발견하고 대포를 쏘아 불살랐다.

<표 9> 적진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 아침 진해 고리랑에 왜적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 받음. • 안팎의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 • 고성 적진포에 왜적의 큰 배와 중간 배 13척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었고, 왜적들은 민가를 분탕질하다가 우리 군사들의 위세를 보고 겁을 내어 산으로 올라감.
이동/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를 받고 곧 출발하여 [……] 고성 땅 적진포에 이르니 [……]
지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 후 천성·가덕·부산 등지의 왜적 배들을 섬멸해버릴 생각도 하였으나, 지형이 좁고 바닷물이 얕아 판옥선 같은 큰 배로 싸우기가 어렵고, 전리우수영 함대가 함류하지 않아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우므로 원군과 상의하여 계책을 논의함.
화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과 대포를 쏘아 맞추어 깨드려 불태웠음.
전투력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 후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음.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왜적, 조선 수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함대 운용 결심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적진포해전은 일본수군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색활동으로 찾아낸 다음 격멸시킨 정보 전투력 요소가 최대로 발휘된 전투였다.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정박해 있는 일본수군의 배에 대해서 임무를 분담하고 협력하여 격멸시켰다.

1차 출전에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영 판옥선 24척과 경상우수영 판옥선 4척 등 총 28척으로, 일본함대와 3차례의 전투를 실시하여 44척을 분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최초의 승전이며 조선수군에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⁶³⁾

나. 이순신의 2차 출전 전투 분석

이순신 함대는 임진년(1592) 5월 29일에 2차 출전을 하였다. 출동규모는 판옥선 23척과 거북선⁶⁴⁾이었고, 경상우수영(원균)의 함선 3척이 노량에서 합류했다. 6월 4일에 전라우수군(이억기)의 함대 25척이 합류하여 당항포해전부터 참전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5월 29일 사천해전을 하였고, 6월 2일에는 당포해전, 5일부터 6일까지 당항포해전, 7일에는 울포해전 후 6월 10일에 전라좌수영으로 복귀하였다.

2차 출전에서 일본수군과 4차례의 해전을 벌여 전과는 일본수군 함선 72척을 격파하였고, 일본수군의 머리 88급을 베었으며, 137명을 사살하였다. 특히, 적장 구루시마 미

〈요도 2〉 이순신 2차 출전 상황도



출처: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36쪽.

63) 이민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해양연구논총』 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7, 121쪽.

64) 이순신은 「唐浦破倭兵狀」에서 거북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하여 그 입으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수백 척의 적선 속이라 하더라도 돌진해 들어가서 대포를 쏠 수 있게 하였다.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치유키(來島通之)의 목을 베는 큰 전과를 얻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 13명, 부상자는 이순신(전라좌수사)·나대용을 포함하여 36명이었다.⁶⁵⁾

사천해전은 임진년(1592) 5월 29일에 있었다. 사천포에 일본수군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순신 함대가 포구에 최초 진입 시에는 썰물이어서 접근이 곤란하였다. 밀물이 되자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적에게 타격을 입힌 후 함선을 번갈아 투입하여 모두 격멸하였다.

사천해전은 <표 10>과 같이 전투력 요소가 잘 통합되어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천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군의 공문에 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포와 곤양 등지에까지 쳐들어왔다 함. • 원군을 만나 적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봄. • 곤양에서 사천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왜선 1척을 추격하여 격멸 • 왜적의 배 12척이 사천포 바닷가에 줄지어 정박해 있음. • 왜적이 높은 곳에 장사결진을 편성하여 지세적으로 불리 • 썰물 때문에 판옥선 진입 불가, 날도 저물어감. • 이순신 함대의 배가 1리도 못 나왔을 때, 왜적이 진에서 내려와 반은 배를 지키고, 반가량은 언덕 아래에 모여서 총을 쏘며 날뛸.
이동/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물이 시작되어 판옥선 진입이 가능해져 노를 재촉하여 적의 배를 공격 • 거북선을 적선 속으로 돌진시키고, [.....] 모든 배들이 번갈아 드나들면서,
지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적을 찾아내 목 베는 일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일부러 작은 배 몇 척을 남겨두어 적을 유인한 다음 모조리 잡아 없앨 계획을 세움.
화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북선의 천·지·현·황자총통 등 각종 대포 사격 • 여러 장수들도 일제히 구름처럼 모여들어 철환·장편전·피령전·화선 및 천자·지자 대포들을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쏘아 대었음. 왜선 전부를 부딪쳐 깨뜨리고 불살라버림.
방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을 타서 사천 땅 모자랑포(경남 음남면 주문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냄.

65)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전투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오에 고성 땅 사랑 앞바다까지 와서는 머물러 군사들을 쉬게 하고 위로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군의 전황 전파에 따라 계획보다 빨리 출동 결심 • 왜적들이 물에서 진을 치고 있고 썰물로 판옥선 진입이 제한되자 유인하여 격멸 • 거북선을 먼저 돌진시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어서 좁은 포구 때문에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왜적선을 분멸시킴. • 신은 더욱 분하여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가서 적의 배를 공격하자 여러 장수들도 일제히 구름처럼 모여들어 [……], 맞붙어 싸울 때 적의 총알이 신의 왼편 어깨에 맞아서 [……]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는 원군이 확인해 주기도 하였지만 사천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본수군의 배를 추격하면서 확실해졌다. 조선 수군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포구에 정박해 있는 일본수군의 배를 공격해야 하지만 높은 지세에 장사진을 형성하여 방어중인 일본군 때문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썰물로 인해 판옥선 진입이 불가하자 일본수군의 배를 큰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려고 한 것은 적·지형·조석 현상 정보까지 종합하여 싸우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순신의 예상대로 일본수군이 정박해 둔 배로 돌아오고, 밀물로 바뀌면서 판옥선 진입이 가능해 지자, 거북선을 먼저 투입시켜 일본함대를 혼란시킨 후 판옥선을 차례로 투입시키는 기동과 각종 총통과 화살 공격을 집중시키는 화력의 통합으로 일본함선을 격멸하였다. 특히 각종 총통을 탑재한 거북선이 최초로 투입되었고, 다양한 무기들이 사용⁶⁶⁾된 것은 화력의 운용에서 주목할 일이다.

지휘통제 측면에서 적의 목을 벤 숫자로 전공을 평가하던 당시에 목을 베지 못하게 하고 전투에 집중하도록 한 조치나 작은 배를

66) 장계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거북선에 탑재된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과 판옥선에서 일본함대에 사격한 철환·장편전·피령전·화전, 천자·지자대포 등이다.

남겨두고 적을 유인하여 잡도록 한 조치 등은 오로지 전투에 승리해야 한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투 후에 전장을 이탈하여 모자랑포에 정박하는 방호활동이나 장졸들에게 사랑 앞바다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는 다음 전투에 대비한 전투력 지속 유지 활동이었다.

사천해전의 승리는 모든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황의 변경에 따라 조기 출전하는 판단력과 결단력, 일본함대를 유인 격멸하는 계획, 거북선을 투입한 후 판옥선들이 집중 공격하는 전투 지휘, 전투에 임했을 때 진두에서 지휘하는 술선수범하는 용기 등의 리더십이 있었다.

당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2일에 있었다. 당포에 일본수군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들이 받고 각종 포를 쏘아 적선을 깨뜨린 후 함선의 포탄과 화살공격을 퍼부어 왜선을 모조리 불태웠다.

〈표 11〉 당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 왜적의 배가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왜적선 12척이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음.
이동/기동	• 먼저 거북선으로 총루선 밑을 곧바로 들이받고, [……] 뒤쪽의 판옥선들이 교대로 쏘아대게 했음.
지휘통제	• 당포해전 후 왜적선 20척을 발견했다는 보고에도 지형이 전투에 불리하므로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고자 했음.
화 력	• 거북선의 웅의 입으로는 현자포 철탄을 치쏘고, 또 천차·지자 대포로 대장군전을 쏘아서 그 배를 깨뜨리게 했으며, 뒤쪽에 있던 판옥선들은 포탄·살탄과 화살들을 교대로 쏘아대게 했음.
방호/전투력지속	• 진주 땅 창신도에 머물면서 밤을 지새움.
리더십	• 당포해전 후 왜적선 2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탐색선의 보고가 있었으나, 당포는 지형이 협착하여 맞붙어 싸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바깥 바다로 유인하여 쳐부수려고 노를 재촉하여 바다로 나왔음.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당포해전도 타 해전과 유사하게 전투가 진행되었다. 일본함선은 조선수군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었고, 이순신은 일본함선이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탐색으로 일본함선을 발견한 다음, 거북선으로 충무선을 먼저 공격하여 적을 혼란시킨 후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시켜 격멸했다. 전투 후에는 전투지역에서 이탈하여 창신도에 정박하는 방호대책을 강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본함선 20여 척을 발견하였지만 당포의 불리한 지형 때문에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겠다는 계책과 판단력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당항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5일에 있었는데, <표 12>과 같이 복잡하게 전투력을 운용하는 과정을 거쳐 승리할 수 있었다.

<표 12> 당항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늦게 걸렸음. • 항화인들이 “당포에서 쫓겨 간 왜적의 배들이 당항포에 정박하고 있다”고 함. • 당항포 어귀의 지형 거리는 10여 리 정도 되는데 폭이 넓어서 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므로, 먼저 전선 서너 척을 보내 지리를 살펴보게 함. • 탐색 보낸 전선들이 곧 바다 어귀에서 배를 돌려 나오면서 신기전을 쏘아 왜적이 있으니 속히 오라는 신호를 보내왔음. • 왜적선은 판옥선만한 것이 9척, 중간 배 4척, 작은 배 13척이 해안을 따라 정박해 있었음.
이동/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전선 서너 척을 포구 안으로 들여보내, 왜적선을 유인하고, 주력부대는 몰래 잠복해 있으면서 적을 격멸할 계획을 세움. • 전선 4척을 바다 어귀에 매복시키고, 주력부대는 들어가서, 여러 배들이 일렬로 일제히 나아가 선수와 선미가 서로 이어져 소소강 서쪽 기슭에 도달함. • 여러 전선들은 포위한 채 있고 거북선으로 돌격시킴. 여러 전선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 • 물러나 한 쪽을 열어주었더니, 큰 왜선이 과연 터놓은 길을 따라 나오는데, [……] 다른 배들도 충각 배를 날개처럼 끼고 호위하면서 노를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나오니, 우리 전선들이 사방으로 포위하여 재빨리 협공, 거북선은 충각 배 아래를 들이받고, [……] • 왜선 4척이 북쪽으로 달아날 때, 여러 장수들이 배를 나누어 적들과 맞붙어 싸워서 모조리 포위해버리니, [……] 전부 불태웠음. • 6일 새벽, 방담첨사 이순신은 새벽녘에 몰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가 거느리는 배를 이끌고 바다 어귀로 나가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배들을 전부 다 잡았음. • 왜적들이 허겁지겁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도망치려고 하여 갈고리(要鉤金)를 걸어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니, 왜적들은 절반 넘게 물에 빠져 죽었음.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지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항포해전 1일 전 전라우수군(이억기) 함대가 합류하여 왜적들을 쳐부술 계획을 의논 • 신기전으로 왜적 발견 신호
화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북선의 천자·지자 대포를 쏘아 적의 큰 배를 꺾었게 했음. • 화살과 대포를 쏘아대기를 마치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듯 하였음. • 거북선이 또 총각 배 아래를 들이받고 총통을 치쏘아서 총각을 깨뜨려 버렸음. 여러 배들이 또 불화살 등을 쏘았는데, 적선의 비단장막과 돛을 쏘아 맞혔음. • 한 배에 타고 있는 놈들이 거의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우리 배가 먼저 지자·현자 총통을 쏘고, 장편전·철환·질려포·대발화포 등을 연속 쏘고 던지자 [……]
방 호/ 전투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항포 앞바다로 배를 옮겨서 진을 치고, 군사들을 쉬도록 한 후 저녁에 고성 땅 말우장 바다 가운데로 옮겨서 밤을 지냈음.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적이 추격하면 짐짓 물러나서 그들을 유인해 오라고 지시함. • 적이 만약 형세가 궁해져서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모조리 섬멸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짐짓 군사를 물리고 포위를 풀어 진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저놈들은 틀림없이 그 틈을 타서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길 터이니, 그때 좌우에서 그 꼬리를 들이친다면 몰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배 1척만 남겨두어 돌아갈 길을 열어 놓고, [……] 어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림.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당항포에 일본함선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순신 함대와 이억기 함대가 일본함선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거북선을 먼저 투입하여 대장선을 타격한 후 다른 여러 함선들을 교대로 투입하여 일본함선들을 타격했다. 일본함선들이 물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러나 유인하여 사방으로 포위한 후, 일본수군이 도주하도록 1척 만을 남겨두고 모두 분멸시켰다. 다음날 새벽, 남겨둔 1척을 타고 도주하는 일본함선마저 격멸하고 적장(구루시마 미치유키⁶⁷⁾)의 목을 베었다.

당항포해전은 조선수군의 전투력이 통합되어 발휘된 전투였다. 일본함선이 조선수군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당항포에 정박하고

67) 도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丁編, 1921, 646쪽; 구루시마 미치유키는 豊臣秀吉의 직속 수군이었고, 伊予의 유명한 해적 출신인 구루시마 형제의 한 사람으로 일본 측 기록에는 할복자살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해전 중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용,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308쪽.

있을 때,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에 의해 당항포로 접근하였다. 폭이 좁은 포구로부터 당항포까지 10여 리나 되므로 치밀하게 탐색선 서너 척을 먼저 들여보냈고, 일본함선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 신기전을 쏘게 하는 지휘통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기동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① 좁은 포구를 차단당하면 곤란하므로 판옥선 4척을 포구에서 매복하도록 하고, ② 주력함대는 일렬로 진을 형성하여 당항포로 접근한 후, ③ 일본함선을 포위한 상태에서 거북선으로 큰 함선을 공격하고, ④ 이어서 판옥선들을 차례로 번갈아 투입하면서 격멸하다가, ⑤ 일본수군이 물으로 도망갈 수 있으므로 포위하고 있던 한 쪽을 터주자 일본함대 총각선을 포함하여 몇 척이 바다 가운데로 나오므로, ⑥ 재빨리 포위하여 거북선과 판옥선이 총각선을 불태우는 도중에, ⑦ 일본함선 4척이 도주할 때 모조리 포위하니 많은 적들이 물로 뛰어들고 산으로 도주하였다. ⑧ 일본수군 도주용으로 1척만 남기고 모두 불태운 후 조선함대는 바다 어귀로 나와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⑨ 예상대로 새벽에 일본함선 1척이 도주하려다가 매복하고 있던 방담첨사 이순신에 붙잡혀 일본수군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사살 당하였고, 일본수군 장수의 목을 베는 등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지휘통제 면에서 이역기의 전라우수군 함대까지 합류하여 지휘체계가 복잡한 연합함대지만 구체적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일시불란하게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용병술에 관한 이순신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어귀에서 당항포까지 좁고 긴 수로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선을 먼저 보낸다거나, 주력부대가 진입할 때 어귀에 전선 4척을 매복시키는 조치, 일본함선을 공격하다 도중에 포위망 한 쪽을

터주고 일본함선들이 도주할 때 다시 포위하고, 물으로 도주한 적들을 바다에서 격멸하기 위해 일본함선 1척을 남겨 놓았다가 새벽에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불태우는 등 상황판단과 결단력, 치밀한 조치 등 이순신의 리더십이야말로 결정적인 승리요인이었다.

울포해전은 임진년(1592) 6월 7일에 있었다. 정오경에 울포에서 나와 부산 쪽으로 도망가는 일본수군의 대선 5척, 중선 2척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대선 3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전선은 모두 분멸시켰다. 울포해전은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망가는 일본함선을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 일본수군의 목을 베고, 일본함선을 불태워 버린 전투였다.

<표 13> 울포해전에서 전투력 발휘

전투력 요소	전투력 발휘 활동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에 이르니 왜적 큰 배 5척, 중간 배 2척이 울포에서 부산방향 도망 중.
이동/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쫓아가, [……],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 협력하여 왜의 배 1척이 상륙하려 할 때 쫓아가 불살랐고, [……] 작은 배를 타고 뚫고 쫓아 들어가, [……] 빈 배 1척은 바다 가운데서 불살랐음.
방호/ 전투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저녁에 거제도의 온천량 송진포에 도착하여 밤을 지냈음.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울포해전에서는 조선수군의 기동이 매우 뛰어났다. 조선수군과 일본함선이 조우했을 때는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임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여 붙잡았다는 것은 조선수군의 함선이 일본함선 보다 더 빠르게 기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이순신의 1차 출전과 2차 출전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식별할 수 있다. 먼저 2차 출전 시에 이순신은 마음의 여유와 전투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1차 출전과 달리 2차 출전 때는

포작선을 출전함대에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전기간 중에도 난중일기를 기록⁶⁸⁾하였다.

두 번째는 이역기의 전라우수군(판옥선 25척)이 합류하여 연합함대를 구성함으로써 조선 수군 함대의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세 번째는 거북선이 최초로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싸우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거북선이 일본함대의 대장선이나 총루선을 향해 돌격하여 각종 총통을 쏘아 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후⁶⁹⁾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화력을 집중하였다.

네 번째는 사상자가 1차 출전에 비해 많이 발생했는데⁷⁰⁾, 일본 수군의 조총 위력을 실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수군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면서 일본함선을 격멸할 수 있는 전술도 고민했을 것이다.

다. 이순신의 초기 전투 승리 요인 분석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전의 전쟁준비를 기초로 경상도로 1·2차 출전한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난중일기』와 이순신이 전투 후에 조정에 보고한 승첩장계인 ‘옥포파왜병장(玉浦破倭兵狀)’과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의 내용을 기초로 앞의 ‘2장 및 가·나항’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초기 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68) 이순신은 2차 출전 기간인 임진년(1592)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일 난중일기를 기록하였다.

69) 일본함대의 대장선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전투 초기에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임원빈, 「충무공 이순신의 병법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0집,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1998, 189쪽.

70) 1차 출전 때는 일본수군의 화살에 맞은 가벼운 부상자가 1명 발생하였는데, 2차 출전 때는 전사자가 13명이나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이순신과 나대용을 포함한 36명이나 발생하였다.

첫째,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Intelligence) 획득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확인된 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Information)하여 전투를 하였다.

왜란 발발 전에는 왜란이 곧 있을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하였고, 왜란이 발발하자 일본수군이 경상도 지역에서 전라우수군 책임지역으로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모든 함선을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바다 어귀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방어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어준비를 하였다.

전투 시에 일본수군에 관한 정보는 원균, 척후, 탐색선, 향화인, 피난민 등 다양한 수단⁷¹⁾을 활용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였다. 즉 적의 위치·규모·상태·활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기습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전투행동 개시 전에는 반드시 지형정보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천포, 당항포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에 불리한 지형정보에 따라 일본수군을 유인하여 격멸하고자 하는 전술을 펼쳤다.

이순신은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여 시행하기 위해 정보 수집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전투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일본수군들은 조선 수군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여 탐망선 등을 운용하지 않았다.⁷²⁾ 이순신의 1·2차 출동 전투 시에 일본수군들은 대부분 선창가에 정박해 있다가 조선 수군의 공격에 완패하였다.⁷³⁾ 일본수군들의 함포 대응 또한 전혀 없었다. 위의 사실들을

71) 함대가 기동할 때는 좌·우 척후장을 운용하였고, 탐망군·별망군·소선, 향화인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였다. 김세양, 「이순신 제독의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47~48쪽.

72)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0, 45쪽.

73) 이순신의 1·2차 출전 해전 시 일본함대가 선창에 정박해 있다가 조선수군의 기습을 받았던 해전은 옥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고려하여 추론해 보면, 임진왜란 초기 조선수군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함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해전을 하겠다는 개념도 발전시키지 않았다.⁷⁴⁾

둘째, 명확한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체계가 확립되어 연합함대의 전투력이 발휘되었다.

전투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동급의 수사 2명의 함대와 함께 전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⁷⁵⁾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내용 전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반드시 서로 만나서 협의해야만 했다.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임무를 할당할 것이며, 특히 전투 간에 일사불란한 협조된 전투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투 간에는 함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와 명령 수단을 사용하였다.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투 간에 사용한 ‘소라, 깃발, 북’등이 등장하는데, 이순신은 각종 신호수단을 사용하여 명령을 하달하고 함대를 지휘통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었다. 함포해전, 율포해전은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쫓아가서 격멸시킨 전투였다.

74) 일본군은 임진왜란을 준비하면서부터 해전을 통한 조선수군을 격파하거나 해로 장악에 대한 목표는 없었고, 단지 상륙과 축성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조선의 내륙 지방을 탈취한다는 육전의 개념만 생각했던 것이다. 이민웅, 앞의 책, 106쪽.

임진왜란 초기 일본수군이 완패한 것은 그들이 조선수군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조선 침공 개시 단계에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수군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수군장들을 육상의 수비에 가담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145쪽.

75) 당시의 지휘체계는 종적명령체계로 되어 있어 횡적인 인접부대와의 협조체계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재량권과 융통성이 부족하였다. 김일상, 「충무공 이순신과 넬슨 제독의 해전 비교연구」, 『군사논단』 제8호, 한국군사평론학회 안국군사학회, 1996, 236쪽.

사천 바다 가운데로 쫓아가니, [……] 곧 소리를 불고, 기를 휘둘러 후퇴하였다. [……] 이윽고 좁고 험한 곳에 다다르자 이순신이 북을 한 번 크게 쳐 여러 배가 일제히 돌아서서, [……]76)

또한 아래 인용과 같이 다양한 신호수단을 활용하여 명령함으로써 함선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임란기 조선 수군의 전술 운영은 먼저 함대가 출전할 때 세 차례의 나발 신호로 군사들의 행동을 구분하였는데, 이순신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세 차례의 나발 운영은 조선 후기의 수조(水操)에서도 계속 운용되었다. 임란기에 함대의 전투진형은 학익진과 장사진이 운용되었고, 함대가 출전하여 정박할 경우에 해상에서의 결진 형태는 주로 방진(方陣)이 이용되었다. 또 신기전을 이용하여 탐망선으로부터 적선에 대한 발견보고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함선의 신호용구로는 초요기, 대장기, 휘, 흑대기, 독, 요령, 나발(角), 징, 북이 사용되었다.77)

모든 명령을 육성과 악기 및 깃발 등 신호로 해야 하는 조선시대의 지휘체계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78)

셋째, 전장환경과 적 상황을 고려한 기동(Maneuver)으로 우세한 전투국면을 조성했다. 이순신의 기동은 전투를 할 때 대략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일본함대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 - 전투할 때의 기동 - 전투를 마치고 임시 정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1차 출전 간 옥포해전 시에는 일렬로 접근하여 양쪽으로 에워싸서 적을 격멸한 후 영등포 앞바다까지 이동하여

76) 신경, 『재조변방지』, 권2.

77) 정진술, 「조선수군의 전술신호 체계에 대한 연구」, 『학예지』 제15집,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2008, 117쪽.

78) 나승균, 앞의 글, 85쪽.

정박했다. 합포해전에서는 일본수군을 추격하고 붙잡아 격멸한 후 남포 앞바다로 이동하여 정박했다. 적진포해전에서는 포구 안으로 접근하여 총통과 불화살로 분멸하였다.

2차 출전부터는 거북선이 처음 투입되면서 기동전술이 약간 바뀌었다. 함대가 일본함선에 접근한 뒤, 거북선을 먼저 적진의 대장선으로 돌격시켜 혼란에 빠지게 한 다음 판옥선을 교대로 투입하여 격멸하였다. 그리고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포위하고 있는 한 쪽을 열어주고 다시 포위하기도 하고 추격하여 붙잡기도 하는 등 자유자재로 기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이순신 1·2차 출전 전투간 기동전술

구 분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1차 출전	줄지어 들어감. 양쪽으로 에워쌌.	쫓아감.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하여 적진포에 도달	
구 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울포해전
2차 출전	유인, 거북선 돌격 후 일제 공격	사시(10시경)에 도착 거북선 돌격 후 후방 판옥선 사격	안개 걷힌 후 당항포에 도착, 先 탐망선 운용, 4척 매복, 일렬로 왜적선으로 이동, 포위 後 거북선 돌격, 이어서 판옥선 교대공격, 포위망 한쪽 열어줌, 재포위, 매복	영등포에 도달함. 도망하는 왜적 배 쫓아감. 붙잡아 격멸함.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일본수군 안택선의 속도가 3노트 이상이며,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3노트 정도로 안택선이 더 빠르다고 나타나고 있다.⁷⁹⁾ 그렇다면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판옥선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는 속도를 결정짓는 노와 돛의 숫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수군의 안택선은 1노에 1명 또는 2명의 노군이 운용되었으나 판옥선은 1노에 4~5명의 노군이 운용되었으며,

79)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41쪽.

돛은 안택선이 대부분 1개였으나 판옥선은 2개를 운용하였다.⁸⁰⁾ 거기다가 이순신의 1, 2차 출전 기간 동안 일본수군은 선창에 정박해 있거나 약탈한 물자를 함선에 적재함으로써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수군은 도주할 때도 조선 수군에게 붙잡혔다.

원래 일본함선의 장점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보다 경쾌한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었지만, 일본수군들은 약탈한 물자를 함선에 대량으로 적재함으로써 함선의 기동력을 떨어뜨렸다. 막상 전투에 임해서는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탈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바빴다.⁸¹⁾

넷째, 판옥선과 거북선에 탑재된 월등하게 우수한 각종 총통과 다양한 무기를 통합 운용하여 화력(Fires)을 집중하였다.

조선수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에 강력한 화포를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일본함선을 당파(撞破)할 수 있었다. 적을 타격하는 화력은 조선 함대가 일본수군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일본수군은 함선에서 사거리 50~200m의 조총과 화살로 조선 수군에게 대항⁸²⁾했지만 조선 수군은 판옥선에 탑재된 사거리 1km 이상의 총통을 이용하여 일본함선을 격파하고 인원을 살상시켰다.⁸³⁾ 또한, 일본수군과의 거리와 표적에 따라 다양한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파괴와 살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⁸⁴⁾

화력은 기동과 통합될 때 효과가 배가 되는데, 조선 수군이 장비한 총통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거리도 비교적 길었지만 정확한

80)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169쪽.

81)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145쪽.

82) 이순신의 승전장계에 나타나는 조선 수군의 사상자들 보면 일본수군은 조총과 화살을 사용했음이 드러난다. 2차 출전 간에 사망자 13명 중 10명은 조총에, 2명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부상자 중 15명은 조총에 맞았으며, 21명은 화살에 맞았다.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83)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169쪽.

84) 이순신의 승전 장계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철환·대장군전·장편전·피령전·화전·질려포·대발화포 등이 있다.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조준사격이 제한되었으므로 명중률이 낮았다.⁸⁵⁾ 그래서 피해 없이 일본함선에 접근할 수 있는 거북선을 만들었고, 거북선이 일본함선에 근접하여 사격함으로써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판옥선을 적절하게 기동시키고 진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시 정확도가 낮은 화포의 명중률을 제고시켰다.⁸⁶⁾

그렇다면 화력은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었는가? 조선수군은 일본함선에 접근한 다음 거북선을 일본함대의 지휘함선에 돌격시키면서 총통으로 사격하여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어서 판옥선들이 협력하여 총통의 사거리에 맞춰 진을 형성하면서 교대 및 순차적으로 간단없이 집중 사격함으로써 분멸시켰다. 거북선과 판옥선의 기동으로 화력운용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북선과 판옥선의 화력을 통합시킨 것이야말로 승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승리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철저한 부대 방호(Protection)로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보존하였다.

이순신의 방호태세는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군호(軍號)를 사용하여 피아를 구분하였다.⁸⁷⁾

전라좌수영 본영을 떠나 경상도로 출전할 때는 본영을 지키는 책임 장수를 지정하여 본영의 방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2차 출전을 하면서 “군관 전 만호 윤사공을 본영에 남아서 지키는 책임 장수로 삼고, 수군 조방장 정걸에게는 본도의 수군이 출동하면 전라좌도 관내의 각 진과 포에 지휘할 사람이 없으므로 홍양 고을에 주둔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도록 엄하게 지시해 두었습니다.”⁸⁸⁾는 기록에서 보듯이, 본영과 전라좌수영 책임지역을 대리 지휘할 잔류

85) 제장명, 앞의 박사학위논문, 45쪽.

86)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170쪽.

87) 『난중일기』에 군호를 ‘용호(龍虎)’, 북병은 ‘산수(山水)’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난중일기』, 임진년 5월 2일.

88)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책임자를 임명하여 방호태세를 확고하게 하였다.

전투를 위해 이동을 시작할 때는 <표 15>에서 보듯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출발함으로써 함대이동의 은밀성을 유지하였다.

<표 15> 이순신 함대 출동 시간

구 분	1차출전	옥포해전	적진포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당항포해전 후	울포해전 전	2차출전 복귀 전
출동시간	새벽2시	새벽	이른 아침	오전8시경	안개걸린 후	새벽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그리고 <표 16>와 같이 전투 후에는 반드시 전투 장소에서 벗어나 진을 치고 정박함으로써 일본수군으로부터 기습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취했다.

<표 16> 조선 수군의 전투장소와 정박장소

구분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당항포해전 다음날	울포해전
전투장소	옥포	합포(마산)	적진포(통영)	사천포	당포	당항포	당항포 어귀	울포
정박장소	·	남포(창원)	복귀	모자랑포	창신도	당항포 어귀	말우장 바다	송진포

출처: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여섯째, 전투력 지속(Sustainment)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의 ‘2장 나항’에서 분석했다시피 이순신은 왜란 발발 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 물자, 장비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점검하였고, 출동하여 전투를 할 때도 전투력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순신의 1차 출전 기간은 1592년 5월 4일 출발하여 5월 9일 복귀할 때까지 6일간 이었다. 적진포해전을 마쳤을 때 선조의 피난 소식을 접하고 종일 통곡하다가 진을 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간 소식을 듣고 전투의지가 저하된 이유도 있겠지만, 군량미, 포탄, 화약, 화살 등을 보충해야 하고 군사들에게 휴식도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1차 출전 승리를 보고하는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금의 어가가 관서로 피난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분통함이 그지 없어서 온 간장이 다 찢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서로 붙잡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각 돌아가기로 하여 9일 정오 때 모든 배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⁸⁹⁾

이순신의 2차 출전은 1592년 5월 29일 출발하여 6월 10일 복귀함으로써 11일간 본영을 떠나 있었다. 한 번 출동 시 약 10일을 전후한 분량의 군수물자를 준비하여 출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차 출전을 마치고 복귀할 때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장계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일 대적을 만나 바다 위를 돌아다니며 싸우느라 군량이 벌써 떨어지고 군사들도 지칠 대로 지쳤으며 부상자들도 많이 생겨서, 지친 우리 군사들로 편히 쉬 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실로 군사상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⁹⁰⁾

전라좌도 병력이 자기 진영을 떠난 지 10여 일이 넘어 전선과 무기 상태 등 군수 분야를 점검해야 하고, 여러 차례 해전을 거친 수병들이 고단한 상태로 적진 가운데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⁹¹⁾

이순신은 전투 간 중간 중간 군사들에게 휴식도 부여하여 전투력을

89)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90)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91) 이민웅, 앞의 책, 138~139쪽.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옥포해전 후 합포해전 전에 ‘군사들을 시켜 쌀감과 식수를 마련하며 밤을 지내려고 하였다.’든지, 적진포해전 후 ‘군사들에게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다.’라는 장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전투 승리 후 일본함선에서 노획한 품목들 중 ‘우리가 먹을 만한 쌀 3백여 섬은 여러 전선의 배고픈 격군들과 사부들의 양식으로 나누어주고, 의복과 무명 등의 물건들도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어, 적을 쳐부순 후 전리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⁹²⁾’라는 내용을 볼 때 전투력 지속 능력이 고갈되지 않으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전선부대는 군수물자(군량과 탄약, 탄환, 궁시 등)의 재보급을 받을 곳이 없었고, 자급자족에 의해서 출항⁹³⁾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의 분배는 중요한 보급수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승리에 초점을 맞춘 이순신의 전장 리더십(Leadership)이 있었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몇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를 하면서 승리와 귀결되어 나타난 몇 가지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쟁에 대비하는 임무 지향적 현장 중심 원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기율이 문란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했으며,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원칙적인 지휘를 하였다.

②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초기 해전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리더십 중 돋보이는 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년(1592) 5월 3일, 경상도 앞바다로 출전 1일 전, 이순신은

92)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93) 김일상, 앞의 글, 238쪽.

자기 집으로 도망간 여도 수군 황옥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달았다.⁹⁴⁾ 일본수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군령의 지엄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일벌백계의 의미를 담아 처형하여 본을 보이는 결단을 하였던 것이다.

출동시기도 과감하게 결단하였다. 이순신이 임진년(1592) 5월 4일, 1차 출전할 때 전라우수영의 이억기 함대와 함께 출동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순신은 이억기 함대도 4월 30일에 출발하겠다고 하므로 5월 3일까지 기다렸으나, 도착하지 못하자 속히 달려오라고 급보를 띄우고 전라좌수영의 함대만을 지휘하여 출전했다. 일본수군과의 첫 전투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 이순신이었지만, 일본수군을 하루라도 빨리 격멸시켜 기세를 꺾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독 출전을 결심했다.

또한 2차 출전할 때도 이순신은 출전 일자를 임진년(1592) 6월 3일로 정해서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약속했다. 그런데 5월 27일 경상우수사 원균이 공문을 보냈는데, “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포와 곤양 등지에서 쳐들어와서 남해 땅 노량으로 배들을 옮겼다.”고 하였다. 만약에 전라우수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6월 3일까지 기다려서 출동한다면, 그 사이에 일본수군들은 자기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형세가 더욱 불어나게 될 염려가 있기⁹⁵⁾ 때문에 5월 29일에 출동하기로 결단하였다.

즉, 상황을 판단하여 꼭 실행해야 하는 올바른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심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③ 전투간에는 치밀하고 신중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융통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함부로

94) 『난중일기』, 임진년 5월 3일.

95)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고 지휘한 것, 옥포해전 후 영등포 앞바다에서 밤을 지내려고 했으나 일본함선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하여 합포해전을 한 것, 사천해전과 당포해전에서 일본함선을 유인하여 격멸한 것, 당항포해전에서 유인-포위-포위 해제-일본함선 1척을 남기고 도주하는 일본함선을 붙잡아서 분멸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등, 적·지형, 조석현상, 조선 수군 상태 등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전술로 승리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④ 지휘관으로서 ‘용기’를 숭선하여 실천했다. 이순신은 사천해전 중 진두에서 지휘하다 일본수군의 총탄을 맞기도 하였다. 전장에서 지휘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적과의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순신은 이를 숭선하여 실천하였다.

⑤ 전투 유공자에 대한 ‘공정’한 논공행상을 하였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후 장계를 보고할 때 전공이 있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 세부 전공을 기록하여 응당한 표창과 보상을 받게 하였다. 특히 적의 목을 벤 숫자로 전공을 평가하던 당시에, 전투에 집중하도록 목을 베지 않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자를 으뜸 공로자로 삼겠노라고 약속하여, 장계에 별도로 전공을 등급으로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⑥ ‘군사와 백성을 아끼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전투 후에는 일본함선에서 획득한 쌀, 의복, 무명 등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죽은 자는 고향에서 장사지내게 해주고 그 처자들은 구휼하는 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으며, 부상을 입은 군사들에게는 약품을 주고 충분히 치료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군사들의 군기와 사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전투에 임하여는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의 전쟁준비 배경과 전쟁준비 활동,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이순신의 상황판단과 대응 조치, 경상도 바다로 출전하게 되는 과정, 1·2차 출전한 초기 해전에서 전투력을 어떻게 발휘시켜 승리하였는지 등을 전투력 요소로 분석해 보았다.

이순신의 내실있는 전쟁준비 배경에는 정해년(1587)의 흥양 왜구 침입사건이 있었고, 그 때의 교훈을 기초로 기율을 유지시키고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창의적이고 원칙적인 전쟁준비 활동을 하였다. 이순신의 가장 창의적인 전쟁준비 활동은 당시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왜란 발발 정보(Information)를 활용하여 일본 수군의 등선을 거부하면서 최대한 근접하여 일본함선을 화포로 명중시킬 수 있는 거북선의 제작과 현장 전비태세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은 전쟁준비에 필요한 함선, 각종 무기, 방비 시설 등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물론 이순신의 승리 배경에는 조선 초기부터의 전국적으로 추진한 군선과 화기의 개발 및 수군 조직, 16세기 중반의 왜구 침략 대비를 위해 개발된 판옥선과 각종 총통⁹⁶⁾ 등이 있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접수되는 전란 상황과 전란 대비 조치를 예하 관·포와 전라우수영에 전파하였고, 전라 관찰사·병마사 및 조정에까지 동시에 보고하였으며, 제승방략에 따라 일본수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총동원 방식의 병력 충원, 함선 출동 대기, 진의 방비를 점검하였고, 경상도 바다로 출전을 준비하면서 조정의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96) 이민웅, 앞의 책, 196쪽.

이순신은 원균·이억기 함대와 함께 전투를 해야 하므로 지휘통제(Command & Control)체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순신은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 엄격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원균·이억기 함대와 공조를 통한 협조된 작전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일본수군과 전투할 때는 정보(Intelligence), 기동(Maneuver), 화력(Fires), 방호(Protection)가 통합된 작전을 하였다. 먼저 일본수군을 찾고, 보안이 유지된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함대의 기동을 통한 접근, 거북선의 돌격과 판옥선의 일제 기동 및 사격(① 일본함대 대장선을 표적으로 거북선 돌격으로 일본함대의 지휘체계 마비, ② 판옥선들을 총통사거리를 고려하여 진을 갖춰 교대로 기동, ③ 간단없는 화력집중)으로 일본함대 격멸, 전투 후에는 전투지역을 이탈하여 정박함으로써 방호태세를 갖춰 일본수군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즉, 일본수군의 현재 상태와 포구의 지형과 모양, 조석현상 등을 고려하여 유인, 포위, 추격, 매복 등 다양한 기동전술을 구사하면서 거북선과 판옥선의 화력을 통합시킴으로써 승리를 완성시켰다.

전투력 지속(Sustainment)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 함선과 각종 무기류를 주기적으로 검열하여 손상필별하였고, 전투 간에는 노획물을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승리요인은 이순신의 승리 지향적 전장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의 리더십 특징은 임무 지향적 현장 중심의 원칙과 결단, 신중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능력 및 용기, 공정, 백성 및 군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초기전투에서 승리한 요인은 임진왜란 발발 전에 잘 준비한 전투력을 전투에서 통합하여 발휘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순신

이 바로 승리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순신의 해전을 전투력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군사사적으로 객관성을 더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사료로 400여 년 전의 해전을 분석해야 하므로 한계나 미흡함이 노정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6.1.4, 심사수정일: 2016.2.13,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임진왜란, 정해년 사건, 초기 전투, 이순신, 난중일기, 전투력 요소,
1·2차 출전, 승리요인

<ABSTRACT>

The victory factors for General Lee's initial battles and combat readiness from the view point of combat capabilities.

Lee, Gyeong-sig

This study focuses on how General Lee achieved continuous victories in the beginning of Japanese invas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victory factors on the water, this study focuses on analyses of General Lee's combat preparation and emphasized combat capability during initial stages of battles, which defeated Japanese forces.

The background of General Lee's substantial war preparation came from the battle of Japanese invasion led by Hong-Yang in the Year of Jeong-Hae (1587). By developing the foundation for discipline and commanding system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Lee focused on creative, yet stuck to the basic war-preparation. One of Lee's creative works was that he collected information of Japanese combat style to create his battle strategies: to deny enemy's climbing up the warship, but to be close enough to target enemy ships with turtle ships, and to inspect the war preparations. For the war preparations, Lee inspected ships, various weapons, and defense system on the field. But most importantly, Lee's victorious background originated from his nationally scaled propulsion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war-ships, development of cannons specially designed for battles against Japanese forces.

When the actual Lim-Gin Japanese invasion occurred, Lee was fully prepared to go to the war against Japan by utilizing the effective reporting system, which reached to Right naval HQ located in Jeon-Ra provinces, observatory posts, and central government in a very short time. Lee also prepared for all possible routes of Japanese incomings and settled his navy on sea of Gyeong-Sang waiting for the imminent battle command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execute Command & Control system in the battle at the sea of Gyeong-Sang, Lee required strict command system, and hierarchy with Won-Gyun and Uk-Gi Lee's fleet, which allowed well-coordinated strategic system. Also, strategy integrated intelligence, maneuver, fires, and force protections against Japanese Force. First, spot the enemy, approach with fleets during earl dawn when security is assured, then charge with turtle ships and full-on assailment of cannons with Pan-Ok ships to defeat Japanese Navy. After such strategy, Lee quickly ran away from the battle scen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sible ambush attacks and buy some maintenance time for his navy. In summary, Lee achieved the victory via analyzing Japanese Navy's current status, geography, water current, surround and attack strategy, ambush attacks, and effective maneuvers, which integrated with turtle ships and navy's fire power. He also inspected his forces, fleets, and other weapons to sustain his combat capabilities. He distributed loots from the battles to his soldiers to alleviate their fear and fatigue.

The most important victory factor would be Lee's victory oriented leadership. His leadership highlighted field focused operations, principles, executions, and keen discernment, which contributed to flexible strategies, all with courage, fairness, people and his navy.

In order to win the war, combat capability had to be performed at its best, and Lee's victories at the initial battles exemplify preparation for the war and successful coordination of combat capability with his leadership in the naval battles.

Key Words : General Lee, Japanese Invasion, Early battle, First and Second naval battle, Combat components, Factors of the victory

